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9호 [루게 제23466호] 주체100(2011)년 5월 29일 (일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마치고 조국에 돌아오시는 길로 선군조선의 불굴의 정신력, 혁명적기상이 나타치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들과 뜻깊은 상봉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김영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김정각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박도춘동지, 태종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창동지, 인민보안부장 리명수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김원홍동지, 현철해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희천1호발전소 뚝림언제건설장에 도착하시자 군인건설자들은 조중전선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머나먼 중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무사히 돌아오신 어버이장군님께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축원의 마음을 담아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인건설자들에게 답례하시며 외국방문의 길에서 한시도 잊지 않으시였던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듭되는 현지 지도에 무한히 고무된 전체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인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는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추동하는 승리의 포성이 련이어 울려 퍼지고있다.

언제쌍기와 물길굴뚝기를 비롯한 전 반공사들이 마감고비에서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발전소건설을 제기일에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특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심장깊이 새기고 발전소건설에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군인건설자들은 선군

혁명의 주력군단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질풍같이 내달려 제일 어렵고 방대한 뚝림언제공크리트치기를 700여일동안에 끝내는 자랑찬 위훈을 세웠다.

혁명군대의 백철불굴의 정신력과 혁명적전개력, 대중적영웅주의에 의하여 10년이상 걸려야 할 대규모의 건설이 불과 2년만에 기본적으로 끝남으로써 장자강상류의 심심산중에 만년대계의 언제가 솟구쳐올라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기며 승리의 개가를 울린 군인건설자들의 불멸의 위훈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명령을 단 한치의 드림도 없이 결사판철하는것을 신념화, 체질화한 우리 군대만이 떨칠수 있는 위력이며 강성대국으로 치달아오르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뚝림언제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지난해 1월零下 30℃의 혹한속에서 건설장을 찾아오시여 주신 현지말씀을 결사판철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애국심으로 총만원 최전선화선용사들의 사생결단의 각오와 투쟁정신을 활화산처럼 분출시킴으로써 수력발전소건설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조선의 기상인양 하늘높이 솟아오른 거창한 뚝림언제를 바라보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신념을 안고 강성대국건설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창조물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1 번 에 서 계 속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민군인들이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제진것은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내는 놀라운 성과라고 하시면서 희천발전소건설자들이야말로 말로써가 아니라 육탄으로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해나가는 화선용사들이며 강성대국승리의 새날을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대고조시대의 제일기수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통림언제공크리트치의 성과적완성은 우리 군대의 무한대한 정신력과 주체공업의 거대한 잠재력의 일대 파시로 되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과감히 짓부시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또 하나의 자랑찬 승리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발전소건설장에 나붙은 《단숨에》라는 글발을 보시고 여기에는 당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들어 단숨에 결사관철하고야마는 영웅적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함축되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의 사상정신상태가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단숨에》라는 글발을

들에 새기여놓고 인민군인들이 당의 전투명령을 어떻게 결사관철하였는가를 먼 후날에 가서도 후대들이 똑바로 알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북방의 추위속에서도 혁명의 불은 피를 끓이며 착공의 첫삽을 박은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해 물소리만 들리던 심산속이 선군조선의 창조본태를 보여주는 총포성없는 전투장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선으로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지난 기간 안변청년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들을 맡아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운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선인민군 군부대들이 통림전역에서도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통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군인들의 자랑찬 위훈은 강성대국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희천발전소건설장에 흐르는 분파초가 그대로 비약과 혁신이고 이 열정의 도가니속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위훈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고, 이것이 바로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노도쳐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기상이 라고 궁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들끓는 전투현장에서 창작한 문예작품들과 목각품들을 보여주시면서 선군시대 군인문화의 창조자들인 인민군군인들속에는 재간둥이들이 많다고 기뻐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글줄마다, 화폭마다에 어려있는 군인건설자들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성을 읽으시고 혁명적군인정신을 지닌 체험자들만이 창작할수 있는 작품들이라고 하시면서 투쟁과 노래속에 청춘을 빛내여가는 그들의 참된 삶을 높이 치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발전소건설을 앞당겨 끝내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전기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은 강성국가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선차적인 과업이라고 지적하시였다.

희천발전소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공사속도가 비상히 빨라지고있는 것만큼 련관기업소들에서 담당할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희천발전소는 후대들에게 물려줄

만년대계의 귀중한 재부이므로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애국의 일념을 간직하고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통림언제가 완공된 결과 한적하던 이곳이 대인공호수로, 대형양어장으로 전변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인민의 군대로서의 본분을 다하자면 언제까지나 공사를 끝낸 기세로 천천군에서 언제까지의 수십km에 달하는 도로를 훌륭히 건설함으로써 인민들이 좋아하고 덕을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답게 기발을 들고 질풍같이 내달려야 온 사회가 약동하고 대고조기상으로 들끓는다고 하시면서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주요전구마다에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을 자랑스럽게 일떠세운 그 기세, 그 기백으로 희천발전소건설에서도 혁명적군인기질을 계속 힘있게 발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한 발전소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대규모 희천발전소건설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

까지 끝낼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조선의 격진장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불멸의 대강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떤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는가를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자들이 혁명적군인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여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 총공세의 박차를 끊임없이 가함으로써 영웅조선의 불굴의 정신력, 혁명적기상을 다시금 만방에 높이 떨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통림언제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조선인민군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한 전체 건설자들은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 곁사람 피로도 후실 사이없이 자기들의 전투장에 또다시 찾아오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희천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함으로써 강성대국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선봉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 중화인민공화국 방문 성과를 축하하는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 진행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 방문 성과를 축하하는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조국으로 돌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공연을 보게 된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은 1만 5,000여리에 달하는 먼길을 오가시며 불철주야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며 조종천선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와 가장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에게 담례를 보내시며 불타는 애국의 일념을 안고 새로운 비약과 혁신으로 강성대국건설대전을 과감히 벌리고있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인 김정은 동지, 리영호 동지, 김영춘 동지,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홍석형 동지, 김경희 동지, 강석주 동지, 장성택 동지, 김정각 동지, 김영일 동지, 김양건 동지, 박도춘 동지, 최봉해 동지, 태종수 동지, 김평해 동지, 문경덕 동지, 주규창 동지, 우동측 동지, 리명수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인 김경욱 동지, 김원홍 동지, 김명국 동지, 김영철 동지, 윤정린 동지, 국방위원회 국장 현철해 동지와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의 일군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협주단에 예술인들은 공연무대에 어은 금병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진달래>, 합창 <축원>, 남성 2중창과 합창 <공격전이다>, 여성중창 <내 조국은 어디가나 노래 넘치네>, 여성민요독창과 방창 <바다의 노래>, 무용 <황금 열매 주렁졌소>, <옹헤야>, 첼로와 혼

성 2중창 <당을 노래하노라>, 여성 6중창과 소합창 <모란봉 날리리야>, 남성독창 <그보다 정다운 풀 나는 물라라>, 여성독창 <조국은 너를 알게 되리>, 어은금독주 <가마마차 달린다>, 남성기타 4병창 <병사의 행군길>, 설화시 <영원한 우리 집>, 여성독창과 합창 <나래치라 선군조선 천리마여>, 종곡 <사랑하자 나의 조국>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울리였다.

다함없는 흥모와 축원의 마음이 뜨겁게 끓이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조종천선의 년대기우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시고 무한대한 정력으로 이 땅에 부강번영의 새 시대를 펼쳐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일원단심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기어이 완성하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또한 출연자들은 위대한 백두령장의 사랑의 품속에서 역세게 자라나 당과 수령의 혁명전사, 인민의 보위자로 살며 투쟁해나가는 자기들의 크나큰 영예와 긍지, 경애하는 장군님과 영원히

사상도 뜻도 승결도 운명도 함께 하며 계급투쟁의 제일선부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함으로써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첩통같이 지켜갈 내무군인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잘 보여주었다.

관람자들은 격동적인 공연을 보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력사의 온갖 도전들을 물리치며 백승을 떨쳐온 잊을수 없는 영광의 로정을 긍지높이 돌이켜보았으며 사회주의조국의 통성번영을 위해 한몸바쳐 투쟁함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중국방문성과를 더욱 빛내여갈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인민내무군인들을 불러는 총정파고상한 정신세계를 그대로 반영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터치는 열화같은 흥모의 분출로 하여 장내는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담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이 혁명적인정신이 내려치는 예술단체의 예술인들답게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인민내무군협주단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을 과감히 벌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선군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며 예술창조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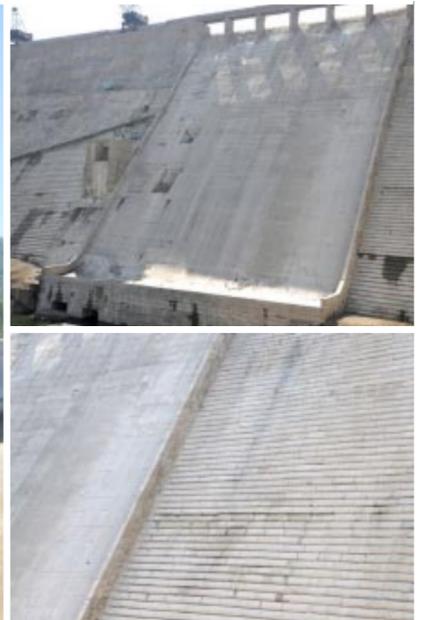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어버이장군님께서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 곁쌍인 피로를 한시바빠 푸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술창조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려 인민내무군인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희천발전소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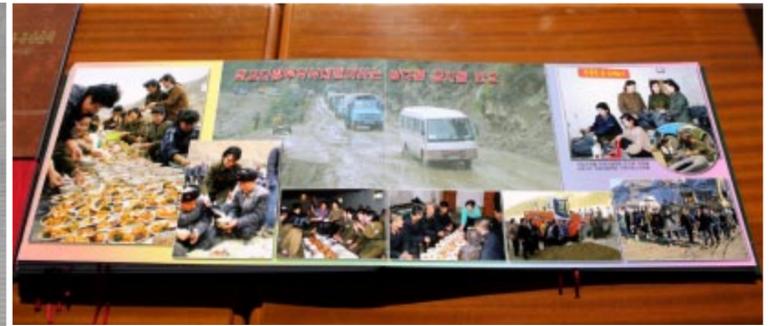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독특한 경치를 자랑하는 신령금강명승지

예로부터 산천경계 아름다와 금수강산, 명승의 나라로 이름 높은 내 조국땅에는 천하절승 금강산과 더불어 금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오는 명승지도 많다. 서쪽에는 황해금강 장수산이요, 북동쪽에는 함계금강 철보산 그리고 북서쪽에는 의주금강 석송산...

그중에는 로동당시대, 선군시대에 또 하나의 금강으로 세상에 태어난 신령금강도 있다. 절세위인들의 인민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은정속에 자기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헌정해 드려낸 신령금강명승지는 우리 로동당시대가 인민에게 안겨준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나라는 산줄기 볼품없고 경치가 아름답다 예로부터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불리우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명승지들은 어느 것이나 다 자기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신령금강을 대표하는 아름다움은 계곡경치이다. 예로부터 계곡경치에서는 황해금강 장수산을 으뜸으로 꼽아왔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금강산이 동부산악지역에 군림한 산악미의 왕자라면 장수산은 서부지역에 혜성같이 나타난 계곡미의 나왕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신령금강의 계곡경치는 계곡미의 너울 장수산과 구별되는 개성적인 아름다움이 있다. 얹힌 하얀데도 수줍음없고, 그러면서도 예쁘고 싱그러움 넘치는 경치를 선사하는 그 청신함과 활짝함, 아담함으로 보면 아마도 계곡미의 공주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장수산의 계곡경치를 볼때 때 항상 신령금강의 특색이 나타나고 있다. 신령금강의 특색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로 보든 그 모습이 다르다. 신령금강의 계곡경치는 특색이 있어 이례적으로 맑고 투명하며 이례적으로 높고 깊고 수려하며 이례적으로 아름다우며 이례적으로 시원하다.

신령금강의 계곡경치는 특색이 있어 이례적으로 맑고 투명하며 이례적으로 높고 깊고 수려하며 이례적으로 아름다우며 이례적으로 시원하다.

신령금강의 계곡경치는 특색이 있어 이례적으로 맑고 투명하며 이례적으로 높고 깊고 수려하며 이례적으로 아름다우며 이례적으로 시원하다.

산이라고 할것이고 하더라도 경치가 좋은 이 일대를 잘 정리할때 대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그후에도 또다시 이곳을 찾아주시어 명승지를 꾸릴 구체적인 방도까지 일일이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손길 아래 수수천천 물결이던 도화동일대가 비로소 신령금강이라는 이름을 빛내이며 명승지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혼을 빛내게 되기까지는 길에서 주제 98 (2009)년 한해에만도 여러차례에 걸쳐 신령금강을 인민들이 즐겨찾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잘 꾸려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신령금강은 선군시대에 와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한껏 드러내게 되었다.

금방 펼쳐졌던 풍경이 열댓 발자국 올라가보면 또다른 풍경으로 안겨오고 앞으로 보면 막힌것 같던것이 그곳까지 가면 또다시 새로운 풍경이 시작되는 신령금강의 계곡경치는 얼마나 신비스러운가. 이것은 명승들이 조밀하게 분포되어있으며 지형이 단순하지 않고 변화무쌍한것이 하여 펼쳐진 자연의 조화이다.

좁은 구역안에도 명승들이 곳곳에 자리잡고있어 무엇보다 보아야 할지 모를 정도이다. 구룡폭포의 좁은 협곡을 따라 펼쳐진 신령금강의 최절경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는 장쾌한 구룡폭포, 물레방아에서 떨어지는 물을 편상계 하는 방아폭포와 이담폭포 등 폭포와 담수들, 금방 바위를 타고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갈듯 한 부엉이바위며 사자봉... 절묘한 기

#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청년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청년들이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 부르르는 노래 《조선청년행진곡》을 높이 부르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블기를 새차게 지겨울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적인 노래는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전무장마다에서 사람들의 투쟁열의를 북돋아주고있으며 우리 시대의 진군을 고무하면서 온 사회에 혁명적분위기를 세우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선군청년총동맹대표회기 팔난 후인 지난 3월 초 공장에서는 청년동맹원들의 모임이 있었다.

대회에 참가하였던 공장 청년동맹원인 박미향동무는 동맹원들앞에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가 얼마나 크며 대회전 과정에 박박한 청년전위들의 결의와 혁명적열정이 얼마나 뜨거우게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게속하여 모두가 노래 《조선청년행진곡》을 높이 부르며 강성대국건설대에서 위훈을 떨치는 청년영웅이 되자고 절절히 호소하는 그의 이야기는 청년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 피끓는 청년들을 앞세워야 한다. 청년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노래 《조선청년행진곡》의 가사가 나불었다. 경박적직공장 생산능력확장공사가 벌어지는

조선청년총동맹대표회기 팔난 후인 지난 3월 초 공장에서는 청년동맹원들의 모임이 있었다.

대회에 참가하였던 공장 청년동맹원인 박미향동무는 동맹원들앞에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가 얼마나 크며 대회전 과정에 박박한 청년전위들의 결의와 혁명적열정이 얼마나 뜨거우게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게속하여 모두가 노래 《조선청년행진곡》을 높이 부르며 강성대국건설대에서 위훈을 떨치는 청년영웅이 되자고 절절히 호소하는 그의 이야기는 청년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 피끓는 청년들을 앞세워야 한다. 청년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노래 《조선청년행진곡》의 가사가 나불었다. 경박적직공장 생산능력확장공사가 벌어지는

# 시대의 영웅, 가족들이 받아안은 크나큰 은정

【평양 5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흔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로력영웅인 조수익, 리충현, 김덕중과 공화국영웅 김광철의 아버지 김명동에게 생일상을 보내주시었다.

청진시 포항구역 가내축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수익은 오랜 기간 당의 축산정책을 받들고 많은 고기를 생산하여 주민세대들에 공급하게 하였다.

또한 그는 온 가족과 함께 4여년간 돼지를 기르며 50여 마리의 인민군인들에게 보내주는 훌륭한 소출을 발휘하였다.

한생을 농업생산에 몰두한 조수익은 안락도 양돈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을 맡아 오다 수평의 사랑과 믿음에 가슴깊이 간직하고 오늘도 나라의 쌀독을 채우기 위한 사업에 헌신하고있다.

김덕중은 30여년간 은과군 양돈목화전문협동농장 작업반장으로 일하면서 해마다 작업반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나날 그는 알뜰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새로운 영농방법을 받아들일때마다 성공하였으며 지난해에는 목화농사를 잘 지어 국가에 리익을 주었다.

물론리광 감독된 김명동은 만이들은 1990년대의 첫 영웅으로 내세워준 당의 은덕을 잊지 않고 성실히 일하고 있을뿐 아니라 둘째아들 형이었던 조소로, 두 딸을 최전선의 군관안호로 보내어 그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도록 하였다.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은 영웅들과 가족, 친척들은 경애하는 김정일군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뜨거운 사랑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경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부강조국건설에 모든것을 바쳐갈 의지를 다들었다.

# 체육사업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열풍

은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치게 일으키는데 대한 열혈공공사업을 받들고 선출부인 일군들과 감독, 선수들이 분발해나섰다.

체육계의 일군들은 종목별 체육기술훈련에 대한 지도에서 새로운 변혁을 이룩할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이들은 체육단, 청소년체육학교들을 비롯한 현지에 나가 감독, 연수사, 지도교원들에 대한 실무학습 및 강습, 과학강연 등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 그들의 실무적지식을 한층 높여주고있다.

당면하며 올해 진행하게 될 17살미만 월드컵경기대회와 20살미만 월드컵경기대회, 여자월드컵경기대회,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 참가자격 획득 경기를 비롯한 국제경기준비에 힘쓰고있다.

일군들과 감독들은 당이 제시한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국제경기대회에서 금메달로 선군조국의 영예를 떨치기 위해 선수들에 대한 훈련지도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고있다.

축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속에 체육단들에서 축구기술훈련에 큰 힘을 넣고 있다.

지난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4. 25. 봉화산, 소백체육단에서는 팀의 전술을 개선하며 선수들의 기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조직을 짜고

되고있다.

마라톤, 럭비, 권투, 배구, 탁구 등 여러 종류의 감독들과 선수들도 우리 식의 기술설명과 훈련방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각자 노력하고있다.

각각의 청소년체육학교들에서는 선수후비육성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자각하고 승승장목들에 대한 기술지도도 강화하고있다.

중학교, 소학교들에서도 축구반들에 대한 운영사업을 잘하여 제능하는 선수후비육을 키워내고있다.

체육과학원, 조선체육대학 등의 연구사, 교원들이 선수들에 대한 훈련과 경기조종의 과학화, 컴퓨터화를 위한 사업에서 실적을 내고있다.

# 훌륭히 꾸려지는 해주시

해주시의 변모가 일신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대장군의 승호와 뜻을 받들고 온녘의 해주시를 선경도시로 꾸릴 목표를 건설 및 개선조계책을 틀어쥐고 세우고 일판을 벌려나가고있다.

시에서는 능력이 있는 일군들과 기술사, 로동자들로 건설력량을 편성하고 설계와 자제를 앞세워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치고있다.

살림집과 도로, 공원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광하동지구에 독특한 형식으로 건설되는 다층살림집의 기초착각작업이 짧은 기간에 끝났고 콘크리트제기에 매일 높은 건설실적이 이룩되고 있다.

모다 편리하고 도시구획에 맞는 새 도로공사가 기본적으로 끝났다.

수양산기슭에 형성되는 등산길이 자연풍치를 살리면서 특색있게 건설되고있다.

시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게 될 광성공원공사에서는 울타리건설과 광석천바

다기서기 등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다.

부유당주변에 꾸려지는 역사교양미관건설도 적극 진척되고 있다.

개선보수공사장들에서도 계획된 대상공사를 최대한간에 높은 진척수준에서 끝내기 위한 사업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뜨거운 최근의 마음은 건설사업에는 최근 두달동안에만도 많은 살림집들을 보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중국 방문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대표단 출발

【평양 5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김광봉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대표단이

# 일본 오사카 일주호대표단 도착

【평양 5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 오사카 일주호대표단이 2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 중국 방문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대표단 출발

【평양 5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김광봉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대표단이

안들이 조화를 이루고있는것이 구룡폭포물이라든 금강폭포물은 형형색색의 서로 대조적인 폭포들로 하여 인상적이다. 높이 30m에 달하는 금강폭포와 그아래에 위치한 애기금강폭포, 아름다운 진주이 흘러내리는 듯 한 진주폭포며 구술달같은 물방울을 날리며 비단필마냥 흘러내리는 비단폭포, 큰 바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모양을 펼친 오누이폭포와 서로 비스한 모양을 이루고 사자봉 두갈래로 쏟아져내리는 형제폭포...

명승지의 제일 큰 담수인 금강소머 희양사물이 자리잡은 도화동구역은 곧바위, 도기바위, 범바위 등 기암경치로 이름을 끈다. 옥류대들의 각이한 크기와 모양의 폭포와 담수들은 한폭의 그림과도 같이 아름답다.

처녀처럼 청신하고 아름답다 하여 처녀폭포로 불려오는 담수로부터 시작하여 삼혈계담과 단풍담, 옥류담 그리고 삼담폭포, 옥류폭포, 신너폭포, 총각폭포 등은 신령금강의 계곡경치를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참으로 멀리서 보아도, 가까이에서 보아도 황홀하기 그지없는 신령금강이다.

모든 협곡들의 절벽경사면이 층층이 단을 이루며 빼어있고 계단바닥에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자라며 때때로 형성된 수림으로 하여 계곡경치는 참으로 매혹적이다. 봄철에는 각양각색의 꽃무늬며, 여름에는 진한 녹색이며, 가을에는 붉은 단풍며, 겨울에는 흰눈이 등색의 절벽과 어울린 풍경은 마치 색동천을 펼친듯 아름답은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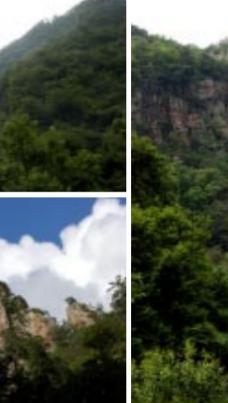
바라볼수록 환희롭고 아름다움수록 가슴이 벅차다. 예가 바로 조국강산이구나, 이처럼 아름다운 내 조국에 제일이 구나 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

심이 백배로 강해지고 아름다움 내 조국을 지켜 목숨도 기꺼이 바칠 불타는 애국심으로 심장이 달아오른다.

신령금강의 여러 명승들에는 사람 못살 그 세월 돈있고 권세있는자들은 향락을 누렸지만 근로하는 인민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릴 엄두조차 못내었으며 오�히려 불행에 당하지 않으면 안되던 쓰라린 역사를 전하는 진실들이 깃들여져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근로인민에게는 불행과 슬픔으로 되어야 하였던 과거는 로동당시대에 와서 영영 끝났네 되었다.

이 땅의 아름답고 훌륭한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하여주시어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을 신령금강은 후손민대에 길이 전해갈것이다.

글쓰기자 정영화 시인 류덕인



신령금강의 아름다움

신령금강의 아름다움

# 미국 무성대표단 귀국

【평양 5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미사이의 인도주의

# 일본 오사카 일주호대표단 도착

【평양 5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 오사카 일주호대표단이 2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 미국 무성대표단 귀국

【평양 5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미사이의 인도주의

# 미국 무성대표단 귀국

【평양 5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미사이의 인도주의

# 일본 오사카 일주호대표단 도착

【평양 5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 오사카 일주호대표단이 2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 미국 무성대표단 귀국

【평양 5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미사이의 인도주의

# 6월 상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논벼농사대책

이와 관련하여 논벼농사에서 벼모내기 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원근벼모기의 모내기 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1계단으로 씨를 뿌린 평장은 5월말까지, 중간모기는 6월 10일까지, 무리복은 6월 15일까지 모내기 작업을 끝내도록 하여야 한다. 불행 다했던 기온의 영향으로 벼모내기가 제때에 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평당 포기수를 줄이고 적은 경우 상대적 수로 높아야 한다. 같은 모종류, 같은 품종인 경우라도 모내기 시기가 늦어질수록 평당 포기수를 높여야 하는데 모내기는 시기가 10일 이상 늦어지면 평당 수확량이 10%정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모판관리를 잘하며 모내기 전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평당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 모판에서 모내기 전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평당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 모판에서 모내기 전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평당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논벼농사에서 벼모내기 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원근벼모기의 모내기 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1계단으로 씨를 뿌린 평장은 5월말까지, 중간모기는 6월 10일까지, 무리복은 6월 15일까지 모내기 작업을 끝내도록 하여야 한다. 불행 다했던 기온의 영향으로 벼모내기가 제때에 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평당 포기수를 줄이고 적은 경우 상대적 수로 높아야 한다. 같은 모종류, 같은 품종인 경우라도 모내기 시기가 늦어질수록 평당 포기수를 높여야 하는데 모내기는 시기가 10일 이상 늦어지면 평당 수확량이 10%정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모판관리를 잘하며 모내기 전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평당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 모판에서 모내기 전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평당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 모판에서 모내기 전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평당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

# 하모니카의 특색있는 음색효과

하모니카는 배우기 쉽고 다루기 편리한 휴대용악기이다. 하모니카처럼 일반대중층에서 광범히 이용되고있는 악기는 현재 없다. 하모니카는 독특한 주법과 풍부한 표현력이 있어 관악과 같은 전문 예술활동에도 적극 이용되면서 특색있는 음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음악은 선들의 예술이다.》

하모니카는 19세기 전반에 독일에서 발명되어 그 후 개량발전되어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 악기의 소리는 부드럽고 애절한 정취를 준다. 이 악기의 소리는 부드럽고 애절한 정취를 준다. 이 악기의 소리는 부드럽고 애절한 정취를 준다.

# 주요국제축구경기일정

우리 나라 남자축선수들이 2011년 17살미만 월드컵경기대회와 2011년 20살미만 월드컵경기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2011년 17살미만 월드컵경기대회는 6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메히코에서 진행된다. 여기에는 2010년 아시아 19살미만 축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쟁취한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 선정한 24개 나라와 지역팀들이 참가한다.

우리 나라 팀은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잉글랜드팀들과 함께 6조에 속하였다.

조별리그에서 우리 나라 팀은 2월 29일에 잉글랜드팀과 첫 경기를 진행하며 8월 1일에 메히코팀과, 8월 4일에 아르헨티나팀과 마지막 경기를 벌리게 된다. 【본사기자】

# 독자의 권리

저는 우리 구분대인들 모두가 안면어머니라고 존경하며 따르는 한 여성에 대하여 소개하고 싶어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안면군 읍에서 사는 신해철녀성입니다. 그와 결혼의 정을 맺은지도 벌써 10년째가 되어왔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정은 언제나 우리들의 가까이 있습니다. 시련의 날에는 가행복한 날에나 변함없이 병사들의 어머니가 되어 그가 바친 정을 온 정성을 아껴 받들어주어줍니다. 그는 소스와 몇몇의 기상나래지는 훈련장들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맘 스민 사회주의

# 안면 어머니

안면어머니라고 존경하며 따르는 한 여성에 대하여 소개하고 싶어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안면군 읍에서 사는 신해철녀성입니다. 그와 결혼의 정을 맺은지도 벌써 10년째가 되어왔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정은 언제나 우리들의 가까이 있습니다. 시련의 날에는 가행복한 날에나 변함없이 병사들의 어머니가 되어 그가 바친 정을 온 정성을 아껴 받들어주어줍니다. 그는 소스와 몇몇의 기상나래지는 훈련장들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맘 스민 사회주의

